

샤프전자, 국내 태양광발전소 완공

경상북도 영주에 1MW급 본격 가동 ... 석유 280톤에 CO₂ 900톤 감축

샤프전자가 경상북도 영주에 1MW(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했다.

샤프전자 한국법인은 2월5일 영주 상망동에서 이기철 대표와 발전소 운영주체인 솔싱크 김병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고 태양광발전소를 본격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샤프전자는 영주 발전소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수주한 뒤 3개월 만에 공사를 마쳤다.

다결정 모듈 약 5800여장으로 구성된 1MW급 발전소의 연평균 기대 발전량은 1350MW로 일반가정 약 6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석유로 환산하면 280톤에 해당하며, 이산화탄소도 900톤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샤프전자 관계자는 “메가와트(MW)급 태양광발전소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단결정·다결정 실리콘(Silicone)타입과 박막 실리콘타입 등 다양한 종류의 태양광 모듈을 생산함으로써 빠르게 커가는 태양광발전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05>